



(자켓 개방이 가능한 구조와 유지보수 편의성으로 클린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구스 e 스킨 케이블 가이드 시스템. e 스킨 플랫으로 3 단 적층에도 무분진 성능을 구현, 지난해 10 월 IPA 클래스 1 등급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 - 출처: igus GmbH)

독일 첨단 폴리머 자동화 기업 이구스(igus)가 2 월 9 일~11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2’에 참가한다고 9 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 초창기부터 국내 굴지 기업들에 클린룸 전용 에너지 체인 시스템을 공급해 온 한국이구스는 세계 최초 개방형 클린룸 케이블 체인 e 스킨 플랫을 비롯해 e 스킨 스탠다드와 E6J 등 클린룸 적용에 특화된 에너지 전달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igus GmbH 의 클린룸 인더스트리 매니저 피터 마토넛은 “이구스가 최초 개발한 ‘길이 조절과 자켓 개방이 가능한 클린 케이블’ 콘셉트의 e 스킨 플랫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는 IPA 클래스 1 등급 추가 인증을 획득한 e 스킨 플랫의 적층형 모델과 e 스킨 플랫 전용 케이블 CFCLEAN 등 이구스의 한층 진화된 클린룸 제품 라인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엑스 1 층 B 홀 전시장에 마련된 한국이구스 부스는 클린룸 설비에 필요한 이구스 클린 체인, 클린 케이블 데모 장비와 다양한 샘플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피터 마토넛은 “이구스 케이블 가이드 시스템의 강점은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모든 구성 파트를 모듈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회를 위해 제작된 이구스 슬리브 샘플은 케이블, 크로스바, 사이드 플레이트, 가로/세로 분리대 등 e-chain® 시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파트들을 볼 수 있으며

이구스가 가진 엔지니어링 폴리머 재질 특성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이는 E6J 모델의 경우, 이구스의 무급유 폴리머 재질 중 내마모성에 특화된 iglidur® J 를 적용해 기존 E6 대비 77%의 케이블 분진 감소 효과를 이끌어냈다”며 “기존 E6 시리즈 파트와 호환이 가능해 기존 E6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